

장석웅 도교육감, 고흥 3남매에 진로 상담

어머니가 비서실에 직접 전화해 자녀들 조언 요청 3남매 "이웃 아저씨처럼 친절히 설명해 줘서 감사"

진로진학에 고민하던 고흥 삼남매가 어머니의 기지(?)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특별한 만남을 가져 화제다.

고흥에 사는 류 씨 삼남매는 지난 19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석웅 교육감을 만나 진로·진학 등을 주제로 1시간 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삼남매의 어머니가 지난 8일 도교육청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고, 장 교육감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

여학생인 맏이와 둘째는 고2, 3학년인데, 남학생인 막내는 중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맏이는 일반계고 문과를 다니지만 농촌지도사나 연구사가, 둘째는 청소년복지사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장래희망이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대학과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장 교육감의 조언을 구했다.

장 교육감은 "모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장래 희망으로 삼아서 기쁘다"며 "성적이나 대학, 학과 등에만 연연하지 말고 자신만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맏이에게 "농생명 분야에선 전남대, 순천대 등 우리 지역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도전하길 바라"고 대학원 진학 등 멀리 보고 꿈을 키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둘째에게 "상담이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과가 많은 만큼 꾸준히 해온 사회복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며 수시전형을 잘 준비해서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맏들기를 좋아하는 막내에게 "유튜브나 게임시간을 줄이고 만들기라는 좋은 재주를 가졌으니 만화도 좋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권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만남에 대해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고민하는 어머니의 열정이 너무 감동이었다"며 "작은 격려라도 해주고 싶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삼남매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고 무리한 요구인 줄 알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이시니 희망의 불씨를 붙여달라는 뜻으로 청을 드렸다"면서 "직접 만나주겠다고 해서 놀랐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삼남매는 "교육감이 이웃집 아저씨 처럼 편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자녀의 진로 진학 지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4개 권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4월부터 본격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대학입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학부모설명회, 대입정보바람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남교육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청기자 douls18309@srb.co.kr



나주시보건소,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나주시 보건소는 최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신규 직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배 공직자와의 업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올 한 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으로 친절한 업무 태도를 함양하는 시간이 됐다. 교육은 2019년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 현안업무 보고를 비롯한 주요 업무 지침 시달, 전문가 강의, 현안업무 토론 등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민원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를 보건소, 진료소 등 보건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공해가기로 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조절과 민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식보건위생과장은 "올 한 해도 시민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혁신도시 조성으로 행정 수요가 보다 다양해진 만큼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목송산업개발(주),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전달

이명식 목송산업개발(주) 대표이사가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광주시 서구 덕흥동 소재 목송산업개발(주) 본사에서 베트남 유학생 응원 캠페인 학생 4명을 초청, 각각 50만원씩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과 베트남 문화 증진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베트남 유학생을 위해 매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유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베트남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본사와 계열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그는 낮은 환경 속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바쁜 회사일정에도 틈틈이 돌보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한-베트남 우호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팜 후우찌 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 대표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부족하지만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면서 "향토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욱기자 jo15605@srb.co.kr



전남대 의대생 생활관 청진(淸眞)학사 개관

지하 1층 지상 8층 350명 입주 규모

전남대는 19일 화순캠퍼스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생활관인 '청진(淸眞)학사'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진학사는 지하1층 지상 8층에 모두 35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장애인실,

기혼자실, 1인실, 2인실 등으로 구분돼 있다. 또 세미나실과 회의실 등 학습시설과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함께 갖춰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미래의학을 연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된 청진학사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1년여만에 준공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아동복지시설서 나눔 봉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이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일택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대표와 총지배인을 비롯한 임직원 9명이 참여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메뉴인 치킨 50인분을 직접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나누먹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치킨이 일택원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유)하나로가구, 장애아동 3명에 학습용 가구 쾌척

광산구 우산동 (유)하나로가구 문병호 대표가 지난 19일 신학기를 앞둔 장애아동 3명에게 전해달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책상·책장·의자 등 450만원 상당의 학습용 가구를 쾌척했다. 이날 나눔은 장애아동에게 공부 공간을 마련해주는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의 '황금빛 공부방' 취지에 문 대표가 공감해 이뤄졌다.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문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마을의 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서고 싶었다"고 밝혔다.

우산동 지사협 위원과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20~21일 세 가정을 방문해 가구를 조립해 놓아주는 등 장애아동 공부방을 새 단장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인사 남부대학교
◇대학본부 ▲부총장·대학원장 류창규 ▲교육혁신원장 임영희 ▲기획부처장 조성현 ▲교육혁신연구센터장 신수경 ▲교수학

습지원센터장 이미아 ▲취업지원센터장 박광현
◇학과장 ▲경향행정학과장 강명진 ▲물리치료학과장 김윤남 ▲언어치료학과장 권미지 ▲무도경호학과장 김영식

무등 게시판 Tel: 606 7725 e-mail: mdilbo@srb.co.kr Fax: 606 7796~7

김민형(광주 세브란스미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최정윤(세종대병원, 강민기(취서광명영양연구소 대표이사)·오화숙(숙명김장소장 대표이사)씨 차려 민지양=23일(토) 낮 1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1층 메리엘을.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

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여성전화 상담센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차별·여성문제 상담 및 법률·의료·주거지원 등 상담,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062-363-0442~3), 인터넷 상담 www.gjhotline.or.kr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

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사랑방사단=아기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전문가 무료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문의 장성환 010-3619-7778, 062-367-0442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24시간 365일 운영)=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아이지킴이 112, 상담전화 062-675-1391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와 쌍방 통행식 교육 눈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홍남진)이 그동안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쌍방 통행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20일 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신규채용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ox퀴즈 교육의 주요내용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ox퀴즈로 풀고 함께 고민해 보는 쌍방통행식 교육을 시범 실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운수종사자교육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출제, 스마트폰으

로 답을 맞추는 쌍방식 통행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우선 프로그램 속 방법 등 사용절차를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토록 한 뒤 교통상식, 광주역사, 도로교통법,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ox퀴즈로 맞추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지루한 교육을 쌍방통행식 교육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홍 원장은 "시범실시해본결과 운수종사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경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 광산경찰청(서장 이명호) 교통안전계 3팀은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아이원유치원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송채석 교통안전계 3팀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을 보호하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성기자 zorba85@srb.co.kr



영광경찰, 테러·재난 장비 활용 및 착용 교육 영광경찰청(서장 정재운)은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경찰서 4층 대청마루에서 테러·재난 등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테러장비 활용 및 착용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정병환기자 yjic130@srb.co.kr